

# 19세기 말을 출발점으로 일제시대, 군부독재시대 거쳐 현재까지 집창촌 역사 풀어내 감춰진 역사를 진지하게 풀어낸 글에 가슴 뛰다

글\_김형중(페이퍼로드 에디터)

“오빠, 어디 가~? 잠깐 놀다 가~.”

늦은 밤, 어둡한 거리를 거닐다보면 아릿한 불빛 아래서 분 냄새와 함께 우리의 발길을 잡아끄는 여인들이 있다. 술에 취한 남성들이 이 여인들에게 이끌려 가는 곳은? 그렇다. 룸살롱, 단란주점, 사창가인 것이다. 못이기는 척 끌려가는 남성들이 원하는 것은 더 이상 한 잔의 술이 아니다. 여성의 웃음과 그들의 몸이다.

2004년 성매매특별법이 발효되면서 전국 각지에서 자신의 몸을 팔아 돈을 벌던 여성들이 조직을 이뤄 정부를 향해 생존권을 박탈하지 말라고 주장을 펼쳤다. 지금도 그 장면이 눈에 선하다. 사람들은 이 낯선 광경에 무엇이 옳은 것인지 감을 잡지 못했다. 나 역시 성을 파는 일을 정당한 노동으로 봐야 하는가, 고민했던 적이 있다. 유명 사상가들은 뭐라고 할까? 하지만 나의 판단 이전에 이들이 생겨난 배경과 이들의 개인적 삶을 먼저 들여다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유곽의 역사》는 바로 그런 고민에서 출발한 책이다. 처음 원고를 받아들였을 때는 적잖이 당황했다. 그간 여러 서적에서 자극적인 양념 역할로만 등장했던 집창촌의 감춰진 생활사가 전면에서 드러난 글이었기 때문이다. 미시사가 유행이라지만 사람들이 꺼리는 성매매의 역사를 책으로 엮어낸다는 것이 영 낯설게만 느껴졌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아직 아무도 시도하지 않은 감춰진 역사를 진지하게 풀어낸 최초의 글이라는 것에 가슴 뛰었던 것이 사실이다. 모두들 모른 척 했던 집창촌의 100년 역사를 시대별로 정리한 글을 보며 지금 내가 이 원고로 책을 만들어낸다는 것이 참 의미 있는 일이었다는 생각으로 가슴이 벅찼다.

기자 출신인 저자는 몇 년 동안 이들의 삶을 추적했다. 각종 자료는 물론 전국을 돌며 지금까지도 영업을 하고 있는 집

창촌을 취재하면서 과연 ‘집창촌’은 언제 어떻게 출발하여 지금에 이르렀는지 시대를 거슬러 기술하고 있다. 19세기 말을 집창촌의 출발점으로 일제시대 전후와 군부독재시대를 거쳐 오늘에 이

르기까지 집창촌 여성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시대적 배경과 함께 이야기를 풀어낸다. 저자에 따르면 지금의 유곽은 일제시대 유입된 형태라고 한다. 그러면서 인천의 옐로우하우스를 비롯해서 부산 완월동, 대구 자갈마당 등 아직도 낯설지 않은 그 이름들의 유래를 설명한다.

해방과 한국전쟁을 치르면서 국가 권력이 이들을 어떻게 이용했는지도 증거를 통해 이야기한다. 성장이 가장 커다란 주제였던 1970년대, 통행금지조차 이들을 비껴갔던 사연에서는 혀를 차지 않을 수 없다. 성의 배설구로서, 국가경제의 어두운 외화수입 경로로 이용당했던 여성들의 지난한 삶. 우리가 이들을 단순한 ‘창녀’로 기억해서는 안 될 대목이다. 그렇다고 저자가 집창촌에 대한, 그리고 거기에 종사하는 여성들에 대한 가치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저자는 성매매특별법 이후 더욱 은밀해진 영업 형태와 그로 인해 더욱 착취를 당하는 여성과 미성년자가 있음을 경고한다. 과연 정부는 무엇으로 이들을 보호하고 언제쯤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인정할 것인지 묻는다. 그리고 말한다. 이제 출발점에서 있는 것이라고. **김형중**

